

## 唐宗海의 六經 氣化學說에 대한 研究

- 『傷寒論淺注補正』을 중심으로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李相協\*

### A Study on Tang Zong-hai's Theory of Qi Transformation within the Six Meridians

- focussed on 『Shanghanlun Qianzhubuzheng』 -

Lee Sang-hyup\*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ang Zong-hai's Qi transformation theory of the Six meridians through his book 『Shanghanlun Qianzhubuzheng(傷寒論淺注補正)』 where he integrated Western anatomy with the Qi transformation theory of East Asian Medicine to interpret Zhang Zhong Jing's 『Shanghanlun(傷寒論)』. The objective is to assist clinical application.

**Methods**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disease of the six meridians in the 『傷寒論淺注補正』, Tang's theories on the function of Zangfu(臟腑), Opening-Closing-Pivot(關闔樞), Inter-communication of Zangfu(臟腑相通), the Twelve Meridians(十二經脈) from his other publication 『中西匯通醫經精義』 were examined and related to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Qi transformation theory in detail.

**Results** : 1. The Qi transformation function of the Taiyang meridian is related to “膀胱者, 氣化則能出” where the Small Intestine and Bladder inter-communicate. 2. The Qi transformation function of the Yangming meridian is related to the control of dryness and dampness through the Qi transformation of “陽明不從標本, 從乎中.” 3. The Qi transformation function of the Shaoyang meridian is related to the Life-Fire function of the Triple Energizer-Gallbladder-Pericardium coalition through “少陽屬腎.” 4. The Qi transformation function of the Taiyang meridian refers to the Heart Fire nurturing the Spleen Earth by creating 膏油 through veins. 5. The Qi transformation function of the Shaoyin meridian is related to the controlling of the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through ‘心主血脈, 腎主元氣.’ 6. The Qi transformation function of the Jueyin meridian is related to the ability of 和風 which results from ‘陰盡陽生’ to harmonize and control the balance of Water Coldness(水冷) and Fire Heat(火熱).

**Conclusions** : Tang's Qi Transformation Theory of the Six Meridians is his key theory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Qi transformation of disease in the six meridians of 『Shanghanlun』, closely related to basic theories such as theory of Zang form(臟象學說), Opening-Closing-Pivot(關闔樞), Inter-communication of Zangfu(臟腑相通), the Twelve Meridians(十二經脈) of East Asian Medicine.

**Key words** : Tang Zong-hai, Shanghanlun Qianzhubuzheng, six-meridian, qi transformation.

\* Corresponding Author : Lee Sang-hyup.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52-57 Yangjeonglo, Busanjin-gu, Busan, 47227, South Korea

Tel : +82-10-9811-8073, E-mail : sanghyup@deu.ac.kr

Received(October 28, 2019), Revised(November 6, 2019), Accepted(November 7,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緒論

唐宗海는 청대 말기의 저명한 의학자로 字는 容川이며, 四川省 彭縣 사람이다. 그가 생활하던 당시에는 서양의학이 대규모로 中國으로 유입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먼저 ‘中西醫學의 匯通’을 시도한 대표적인 의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sup>1)</sup>

그가 저술한 서적으로는 『傷寒論淺註補正』 7권, 『金匱要略淺註補正』 9권, 『中西匯通醫經精義』 2권, 『本草問答』 2권, 『血證論』 8권 등이 있는데,<sup>2)</sup> 그 중에 『傷寒論淺註補正』과 『金匱要略淺註補正』은 陳修園이 편찬한 『傷寒論淺註』와 『金匱要略淺註』를 보완하여 訂正한 것이다.

陳修園의 『傷寒論淺註』는 清代의 의학자인 張隱庵과 張令韶 두 사람의 주석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의학자들의 주석을 채집해서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기를 “비록 간간히 矯枉過正한 곳이 있지만 五運六氣와 陰陽이 交會하는 이치를 밝히고 있어서 흡사 仲景이 自序에서 ‘저술할 때 『素問』 『九卷』 『陰陽大論』을 사용하였다’는 뜻과 부합하기에 나는 최고로 탄복하였다.”<sup>3)</sup>고 말하고 있다.

唐宗海는 陳修園의 『傷寒論淺註』를 역대 『傷寒論』을 주석한 책 중에서 최고라고 칭송하였으며, 아울러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臟腑에 관한 내용과 서양의학에서 形迹을 중요시하는 해부학적인 장점을 취하여 『內經』의 氣化와 관련된 설명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해석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을 보충한 것이 『傷寒論淺註補正』인 것이다.

唐宗海의 六經 氣化學說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으로는 “唐宗海의 醫學思想”<sup>4)</sup>과 “唐宗海의 醫易思想에 관한 研究”<sup>5)</sup>, “唐宗海의 脾胃에 대한 醫學觀 研

究”<sup>6)</sup>, “唐宗海의 中西匯通에 의한 脾胃觀”<sup>7)</sup> 등의 내용에 부분적으로 氣化學說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중국의 논문으로는 “『傷寒論淺註補正』試析”<sup>8)</sup>, “『傷寒論』六經氣化理論淵源與發展的文獻研究”<sup>9)</sup>, “唐宗海之經脈氣化觀淺析”<sup>10)</sup> 등이 있는데 총론적인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唐宗海의 『傷寒論淺註補正』의 ‘總論’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기타 唐宗海의 서적에 나오는 臟腑의 생리적인 기능과 關闔樞 및 氣化學說과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論

唐宗海가 『黃帝內經素問』(이하 『素問』으로 간칭함)의 運氣7篇에 나오는 六經의 氣化學說과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하기를 “六經의 명칭에서 ‘太’는 陰陽이 지극히 큰 것이고, ‘少’는 陰陽이 처음 생기는 것이며, ‘明’은 陽氣가 極盛한 것이고, ‘厥’은 陰氣가 竭盡한 것이다. 먼저 五行이 體가 됨을 알고, 또한 六氣가 用이 됨을 알아야, 이후에 『傷寒』 『金匱』를 읽을 수 있고, 그러한 후에 男女의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sup>11)</sup>고 하였으니, 臟腑의 氣가 本이 되고, 經脈의 氣가 標가 되며, 서로 屬絡 관계에 있는 臟腑의 氣를 中氣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관련된 臟腑 및 臟腑相通과

1)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39.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339.  
3)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p.373. “雖間有矯枉過之處, 而闡發五運六氣, 陰陽交會之理, 恰於仲景自序撰用素問九卷陰陽大論之旨吻合, 余最佩服.”  
4) 이필우, 김용진, 윤창렬. 唐宗海의 醫學思想.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韓醫學編 제3권 제2호. 1995.  
5) 김기욱, 박현국. 唐宗海의 醫易思想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제12권 2호. 1999.

6) 허중찬, 원진희, 문구. 唐宗海의 脾胃에 대한 醫學觀 研究. 한국전통의학지. 제15권 1호. 2006.  
7) 허중찬, 조원준. 唐宗海의 中西匯通에 의한 脾胃觀.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제13권 1호. 2007.  
8) 肖衍初. 『傷寒論淺註補正』試析. 廣西中醫學院. 第2卷 第353頁. 1984.  
9) 郝日晋. 『傷寒論』六經氣化理論淵源與發展的文獻研究. 湖北中醫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p.49~54.  
10) 李素云, 趙京生. 唐宗海之經脈氣化觀淺析. 中國鍼灸. 第29卷 第5期. 2009. pp.409~411.  
11)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 “六經之名, 太者陰陽之至大, 少者陰陽之初生, 明者陽氣之極盛, 厥者陰氣之竭盡也. 先知五行以爲體, 又知六氣以爲用, 然後可以讀傷寒金匱, 然後可以治男女百疾.”

구체적인 病症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太陽病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太陽之上，寒氣治之，中見少陰.”<sup>12)</sup>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少陰太陽，從本從標.”<sup>13)</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太陽病 관련 臟腑

唐宗海에 의하면 太陽經을 순환하는 氣는 인체가 呼吸하는 氣와 관련이 있으며, 太陽經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臟腑로는 膀胱과 小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사람이 吸入한 氣가 肺를 따라 心을 거쳐 心火를 당기면서 아래로 腎系로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連網<sup>14)</sup>으로 가서 氣海·血室 속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것이 膀胱의 水를 훈증하면 모두 氣로 변화하여 氣海로 투출한 것이 油膜을 따라 위로 胸膈으로 감으로써 喉에 도달하는데 이것이 呼出하는 氣가 되는 것이다. 油膜을 따라 사방에 도달하는 것들은 肌肉으로 달려가서 皮毛로 나오는데 이것이 衛外之氣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小腸과 膀胱이 氣로 변화하여 衛外하는 까닭이며 통칭 太陽經이 되는 것이다.”<sup>15)</sup>고 하였다.

여기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太陽經에 소속되는 臟腑가 膀胱과 小腸이라는 것과 함께, 氣化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呼吸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膀胱의 氣化작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sup>16)</sup>라고 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小便是 膀胱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三焦가 주관하는 것이고, 膀胱이 주관하는 것은 곧 津液을 생성한다는 것에 있다. 腎中之陽氣가 膀胱의 水를 蒸動하면, 이때 水 중의 氣가 상승하면서 津液이 된다. 氣가 사물에 붙으면 변화하여 水가 되고, 氣가 皮毛로 나오면 汗이 되며, 氣가 口鼻로 나오면 涕와 唾가 되고, 臟腑의 內外로 游溢하면 통칭해서 津液이 된다. 실제로 腎陽이 하부를 蒸動함으로써 膀胱의 水가 변화하여 상행하므로 ‘腎合膀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膀胱은 腎이 津液을 생성하는 腑가 된다.”<sup>17)</sup>

이것은 膀胱의 氣化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水가 膀胱으로 들어가면 氣化하여 上行함으로써 津液이 되며, 그 나머지가 아래로 나오면서 小便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氣化의 과정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떠한가? ‘氣化’는 火가 水와 사귀어야 氣로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 몸의 水火가 어떻게 사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대개 사람의 心臟은 火를 주관하며, 사람이 코로 흡입한 氣는 天陽에 해당하는데 역시 火에 속한다. 서양의학에서 말하기를 ‘氣가 鼻로 들어오면 그 管이 肺로 들어가서 心系를 거쳐 背脊을 순환한 후 아래쪽으로 腎系로 들어가며, 또한 腎系로부터 連網에 도달함으로써 臍下에 이른다’고 하였다. 서양의학에서 말한 吸入하는 통로를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해보면 吸入하는 것은 天陽이니 火에 속하는데, 心系를 거치면 心火를 당겨서 함

1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13)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14) 連網(大綱: Greater Omentum)

15)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34. “凡人吸入之氣，從肺歷心，引心火下入腎系，直走連網，抵氣海血室之中，熏蒸膀胱之水，皆化爲氣，透出于氣海，循油膜上胸膈，以達于喉，是爲呼出之氣.”

1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9.

17)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9. “溺出膀胱，實則三焦主之，而膀胱所主者，則在於生津液。腎中之陽，蒸動膀胱之水，於是水中之氣，上升則爲津液。氣着於物，仍化爲水，氣出皮毛爲汗，氣出口鼻爲涕爲唾，游溢臟腑內外則統名津液。實由腎陽蒸於下，膀胱之水化而上行，故曰腎合膀胱，而膀胱爲腎生津液之腑也.”

깨 아래쪽으로 臍下 곧 '氣海'로 들어가는 것이다. 女子는 '胞宮'이니 『內經』에서 말한 '膀胱者, 胞之室'이라고 한 것이다. 胞는 곧 油膜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큰 夾室인데, 伸縮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크기가 膀胱보다는 크며, 胞와 膀胱은 단지 한 칸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또한 전체적으로 미세한 血管이 膀胱과 서로 통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흡입한 天陽이 心火와 함께 아래쪽으로 胞中에 이르면 膀胱의 물을 증발시켜 氣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니, 서양에서 불로 끓여 물에서 蒸氣를 취하는 방법과 차이가 없다."<sup>18)</sup>고 하였다.

사람이 코로 흡입한 氣가 心火와 함께 아래쪽으로 胞中에 이르면 膀胱에 있는 津液을 증발시켜 氣로 변화하게 만듦으로써 인체의 表를 호위하는 衛氣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呼吸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에는 督脈과 任脈의 작용도 관여하고 있음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唐宗海가 말하기를 "무릇 吸은 척추를 따라 들어오는 것이니 督脈이 주관하는 것이고, 呼는 膈膜을 따라 나가는 것이니 任脈이 주관하고 있다. 吸入하는 것은 陽이니 火가 水에 사귀는 것이고, 呼出하는 것은 陰이니 氣가 곧 이 水인 것이다. 呼吸의 순환법은 道家에서 秘訣로 삼은 것인데, 醫家에서는 그 가리키는 것에 愚昧하였고, 오직 『內經』에서 '氣化則能出'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마디의 말로 분명하게 폭로하였는데 어찌하여 주석가들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인가! 火가 蒸水하지 못하면 津液이 상승하지 못하여 氣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水가 濟

火하지 못하면 津液이 乾枯하여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sup>19)</sup>고 하였다.

또한 唐宗海는 心火가 아래쪽으로 사귀어 올 수 있는 까닭은 小腸이 心의 腑가 되기에 心火를 인도하여 아래쪽으로 膀胱과 사귀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唐宗海가 말하기를 "하행한 수액은 아직 氣로 변화하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心火가 아래쪽으로 사귀는 것을 기다려야 氣로 변화한다. 心에는 管이 있어서 肺와 통하는데, 사람이 鼻中으로 天陽의 氣를 흡입하면 肺를 따라 心을 거치기에 心火를 당겨서 척추를 따라 腎系로 들어가고, 腎系로부터 連網으로 들어감으로써 小腸으로 布達되는 것이다."<sup>20)</sup>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太陽經證을 논하면서 다만 膀胱만을 알고 小腸을 빠뜨리는 것은 膀胱이 主氣하고 小腸은 主血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니,

唐宗海가 말하기를 "중국에서 근래에 설명하기로는 水가 小腸으로 들어간 연후에 關門을 통하여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水는 胃로부터 나오면 이미 連網 중으로 들어가니 三焦에 대한 註釋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小腸 중에 受盛하는 것은 단지 食物뿐으로 陰質이 된다. 飲은 주로 氣로 변화하고 食은 주로 血로 변화한다. 食物이 小腸에 있으면 모두 液으로 변함으로써 連網으로 나오고 드디어 위쪽으로 心을 봉양하여 血을 생성

18)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2~23. "蓋人心主火, 人鼻吸入之氣, 乃天陽也, 亦屬火. 西醫云, 氣從鼻入, 其管入肺, 歷心系, 循背脊, 以下入腎系, 又從腎系達連網, 以至於臍下. 按西醫所說, 吸入之路, 推究其理, 則知吸入者是天陽屬火也, 歷心系, 則引心火而并下入臍下即氣海也. 女子名爲胞宮, 經云 '膀胱者, 胞之室.' 胞即油膜一大夾室, 能伸能縮, 實大過於膀胱, 胞與膀胱, 只隔一間, 又全在微絲血管與膀胱相通. 凡人吸入之天陽, 合心火下至胞中, 則蒸動膀胱之水, 化而爲氣, 與西法以火煎水取氣無異."

19)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 "夫吸從吞入, 督脈主之; 呼從膈出, 任脈主之. 吸入陽也, 火交於水也; 呼出陰也, 氣即是水也. 呼吸循環, 道家以爲秘訣, 醫家味其指歸, 惟『內經』氣化則能出矣. 一語明明指破, 何注家多不識耶! 火不足以蒸水, 則津液不升, 氣不得化; 水不足以濟火, 則津液乾枯, 小水不下."

20)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34. "下行之水, 未化爲氣者也, 必待心火下交, 乃化爲氣. 心有管通肺, 凡人鼻中吸入天陽之氣, 從肺歷心, 引心火循吞入腎系, 由腎系入連網, 以布達小腸."

하는 것이니, 이른바 小腸은 心의 腑가 되면서 心이 필요한 재료를 취하는 장소인 것이다.”<sup>21)</sup>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한 ‘三焦에 대한 註釋’이란 水液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 三焦의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전은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지금의 의사들은 대부분 水가 小腸의 下口에 이르면 방광으로 스며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醫林改錯』과 서양의 사들이 모두 비슷으면서 지적하였다. 대개 唐代 이후로 三焦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서양의학에서 말하기를 ‘마신 물이 脬로 들어가면 脬의 四面에는 모두 미세한 血管이 있는데, 마신 물을 흡수하여 膈膜으로 보내고 連網과 油膜에 도달하면 아래쪽으로 膀胱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sup>22)</sup>고 하였다.

『傷寒論』에 나오는 太陽病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膀胱과 小腸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기타 臟腑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반드시 小腸과 膀胱이 交通하는 까닭을 알아야 하고, 또한 반드시 心과 脬의 水火가 相蒸하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더욱이 반드시 兩腑와 兩臟의 연락이 모두 三焦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三焦가 곧 油膜인 것으로 그 뿌리는 腎系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이 위쪽으로는 心包로 귀결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아야 太陽病篇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sup>23)</sup>고 하였다.

또한 『醫學入門·臟腑』편에 나오는 五臟穿鑿論의 臟腑相通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肺와 膀胱의 상통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清利膀胱水, 後用分利清濁. 膀胱病宜清肺氣爲主, 兼用吐法.”<sup>24)</sup>라고 하였다.

唐宗海가 설명하기를 “肺는 ‘通調水道, 下輸膀胱’을 주관하는데, 그 도로는 전적으로 三焦의 膜中에 있음을 上卷에서 이미 상세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肺와 膀胱의 거리가 매우 멀지만 실제로는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肺病이 생기면 水가 정체하여 痰飲이 되므로 마땅히 清利膀胱함으로써 瀉하여주는 것이고, 膀胱病은 대부분 肺의 上源이 소통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마땅히 清肺氣를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다.”<sup>25)</sup>고 하였다.

太陽의 氣는 속에 있는 油膜으로부터 肌肉과 皮毛로 투출하며, 上行하는 것은 油網으로부터 胸膈으로 투출하여 喉鼻에 도달한다고 보았는데, 喉·鼻·皮毛는 모두 肺가 담당하는 곳으로 太陽의 氣가 위쪽으로 肺와 합한다고 보았다.

## (2) 太陽寒水の 의미

唐宗海는 ‘太陽寒水’라는 명칭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 온 몸의 水를 주관하는데 水의 本性이 원래 차갑기 때문에 ‘寒水’라고 부르는 것이며, ‘太陽經’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水 중에서 氣로 변화하여 상행하면 바깥을 호위하는 巨陽이 되는 까닭으로 ‘太陽經’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21)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 “中國近說, 水入小腸, 然後從關門下, 飛渡入膀胱. 西醫斥其非也, 水從胃已散出, 走連網, 詳下三焦注. 然則小腸中所受盛者, 只是食物, 乃陰質也. 飲主化氣, 食主化血. 食物在小腸, 皆化爲液, 以出於連網, 遂上奉心而生血, 所以小腸爲心之腑, 乃心所取材處也.”

22)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 “今醫皆謂水至小腸下口乃滲漏入膀胱, 非也. 『醫林改錯』, 西醫, 均笑斥之. 蓋自唐以後, 皆不知三焦爲何物, 西醫云, 飲水入胃, 胃之四面皆有微絲血管, 吸出所飲之水, 散走膈膜, 達於連網油膜之中, 而下入膀胱.”

23)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35. “人必知小腸膀胱交通之故, 又必知心腎水火相蒸之理, 尤必知兩腑兩臟其連絡全在三焦. 三焦, 卽是油膜, 其根發於腎系, 其上歸結爲心包. 悉知乎此, 乃可以讀太陽篇.”

24)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04.

25)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5. “肺主通調水道, 下輸膀胱, 其路道全在三焦膜中, 上卷已詳言之, 故肺與膀胱相隔甚遠, 而實相通. 肺病則水停爲痰飲, 故宜清利膀胱以瀉之, 膀胱病多由肺之上源不得疏通, 故宜清肺氣爲主.”

唐宗海가 말하기를 “『內經』에서 말하기를 ‘太陽之上, 寒氣治之.’라고 하였는데, 太陽의 經氣는 외부에 거처함으로써 衛氣가 되면서 元陽의 氣가 되며, 이 氣는 실제로 膀胱 寒水의 속에서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다. 膀胱은 腎의 腑이면서 小便을 주관하는데, 사람이 마시는 물은 腸胃를 따라 三焦인 油網로 들어가며, 油網을 따라 膀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치 자연계에 바다가 있으며 물이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北方의 寒水之氣에 상응하는 것이 心火를 인도하면서 三焦를 淸利하는 것은 모두 寒水의 작용에 의지하는 것이니, 가령 사람에게 이러한 寒氣가 없다면 燥나 火熱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寒水의 氣는 太過해서도 안 되고 또한 不及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이러한 水가 氣로 변화하여 衛外할 수 있는 까닭은 곧 心火의 下交에 의지하여 水가 변화하여 氣가 되는 것이다.”<sup>26)</sup>고 하였다.

그리고 太陽經이 ‘從本從標’하는 규율성에 대해서 小靑龍湯과 大靑龍湯을 사용하는 조문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小靑龍湯은 ‘寒動其水’한 증상이다. ‘太陽之上, 寒氣治之.’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寒水가 太陽의 本氣가 되는 것이므로 表寒이 풀리지 않으면 안으로 水氣를 동요하여 드디어 停飲이 되고 咳嗽을 일으키니, 小靑龍湯의 乾薑과 細辛을 사용함으로써 寒을 몰아내는 것이다. 大靑龍湯은 ‘寒閉其熱’한 것이다. 太陽膀胱은 水 중에서 化氣하여 上行外達하면 외부를 호위하는 陽이 되므로 太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그 본은 寒하지만 그 標는 熱하다는 것이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太

陽少陰, 從本從標.’라고 하였는데, 그 標陽도 역시 主事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이 外達하지 못하여 內에 鬱하여 熱이 되면 煩躁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大靑龍湯은 石膏를 사용함으로써 淸熱시키는 것이다. …… 大靑龍湯證이 煩躁하는 까닭은 太陽의 標熱이 內遏해서 생기는 것이니 少陰心과는 원래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膀胱水中의 陽이 氣로 변화하여 上行하려면 실제로 腎命門의 陽氣를 빌려서 변화하여야 위로 心에 합할 수 있는 것이니, 마치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少陰의 本氣가 熱이 되는 것으로, 『內經』에서 ‘少陰之上, 熱氣治之.’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太陽의 標陽이 內鬱하면 同氣相求하여 心과 합하기에 煩躁가 되는 것이니 熱로써 熱에 나아가는 것이고, 石膏는 水陰의 氣를 품고 있으므로 淸熱할 수 있는 것이다. 太陽 傷寒이 능히 動水하고 능히 遏熱하는 것을 알면 곧 이하의 變證들은 모두 이러한 두 가지 途中을 따라 생기는 것이니, 그렇게 되는 이치를 모두 미루어 찾을 수 있다.”<sup>27)</sup>고 하였다.

### (3) 太陽病 관련 病症

太陽은 인체의 肌表를 주관하기에 外邪가 침범하면 대부분 表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내 몸의 正氣가 邪氣에 저항하면서 분기할 때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太陽病인 것으로 또한 表證이라고도 부른다.<sup>28)</sup>

26)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4~25. “『內經』云: 太陽之上, 寒氣治之. 言太陽經氣居外以爲衛, 元陽之氣也, 而此氣實發于膀胱寒水之中, 膀胱爲腎之腑, 主小便. 凡人飲入之水, 從腸胃入三焦油網, 從油網入膀胱, 如天之有海, 水之有壑, 應北方寒水之氣, 而能導引心火, 淸利三焦, 皆賴寒水之功用. 設人無此寒氣, 則不足以濟燥火熱. 故寒水之氣, 不可太過, 亦不可不及, 此水之所以能化氣衛外者, 則又賴心火下交而水化爲氣也.”

27)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82. “小靑龍是寒動其水之證, 太陽之上, 寒氣治之, 是寒水爲太陽之本氣, 故表寒不解, 則內動水氣, 遂爲停飲作咳, 小靑龍所以用薑辛以驅寒也. 大靑龍是寒閉其熱, 太陽膀胱水中化氣, 上行外達, 爲衛外之陽, 故稱太陽, 是其本寒而其標熱也. 『內經』謂太陽少陰從本從標, 謂其標陽亦能主事, 故陽不外達, 鬱于內爲熱, 則發煩躁, 大靑龍所以用石膏以淸熱也. …… 大靑龍證所以煩躁, 是太陽標熱內遏之所致, 與少陰心, 原不相涉. 然膀胱水中之陽, 化氣上行, 實借腎命門之陽氣化之, 上合于心, 如天之有日, 故少陰之本氣爲熱, 『內經』所謂少陰之上, 熱氣治之也. 今太陽之標陽內鬱, 則同氣相求, 合心而爲煩躁, 以熱就熱也. 石膏秉水陰之氣, 故能淸熱. 知太陽傷寒能動水, 能遏熱, 則以下變證, 皆從此兩途而生, 其理皆可推求矣.”

28)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8.

唐宗海가 營衛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腎은 水에 속하면서 衛氣의 주체가 되고, 心은 火에 속하면서 營氣의 주체가 된다. 心火가 아래쪽으로 腎과 사귀면 丹田 氣海 속에서부터 膀胱의 水를 蒸動하면 화합하여 氣로 변화됨으로써 外部를 충실하게 하는데 이것이 營衛가 된다. 營氣는 心에서 나오기에 火와 血에 속하고, 衛氣는 腎에서 나오기에 水와 氣에 속한다.”<sup>29)</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桂枝湯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대개 ‘寒當傷衛, 風當傷營.’ 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寒當傷衛’라고 말하는 것인가? 寒은 太陽의 本氣이다. 太陽의 陽은 至陰에서 발생하여 皮毛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 이것이 皮毛의 一層에 衛氣가 머무르는 것으로 衛陽이 虛하면 外寒을 불러들여서 寒邪가 衛氣를 손상시키면 皮毛가 閉塞되므로 無汗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風傷營’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風은 六氣에 있어서 厥陰風木에 속하는데, 厥陰은 營血을 주관하기에 血虛하면 外風을 불러들이므로 風傷血하는 것이다.”<sup>30)</sup>라고 하였다.

그가 설명하기를 營血은 비록 衛氣와 더불어 함께 운행하지만, 그것의 차이점으로 皮毛는 衛氣가 담당하는 곳이고, 肌肉은 營血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風傷營’하면 肌肉 속으로 들어가면서 營이 衛를 지켜주지 못하는 까닭으로 衛氣

가 漏出되면서 땀이 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唐宗海는 桂枝湯이 肌肉을 조화롭게 하면서 營血을 다스리는 방제이며, 小腸 血分の 방제라고 파악하였으니,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桂枝의 一味는 능히 心陽을 펼쳐서 小腸의 連網을 따라 바깥쪽에 도달함으로써 營血이 肌肉 사이에 충실하게 하여 邪氣가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桂枝湯이 바로 肌肉을 조화롭게 하고 營血을 다스리는 방제이며, 바로 小腸 血分の 방제인 것이다. 만약 水火가 합하여 변화하는 이치를 모른다면 이 방제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이다.”<sup>31)</sup>고 하였다.

그는 膀胱은 水와 氣를 주관하면서 衛分에 속하고, 小腸은 火와 血을 주관하면서 營分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營血은 心에서 생성되고 肝에 저장되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小腸이라고 보았다. 心火가 營血을 생성시키면 包絡을 따라 아래쪽으로 肝膈으로 들어가서 連網에 흘러지면서 주행하여 小腸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小腸이 心의 陽을 펼치는 것은 連網으로 肝膈을 따라 바깥쪽으로는 腠理에 도달하고, 또한 바깥쪽으로 肌肉에 도달하는데, 이것이 營氣와 衛風이 합하여 太陽의 작용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太陽은 本寒標陽하면서 中氣로는 少陰의 君火가 나타나는 곳인데, 太陽膀胱이 寒水에 속하는 것은 온 몸의 水液代謝를 주관하기 때문에 ‘寒水’라고 부르는 것이며, 水의 본성은 차가운데 ‘太陽經’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이 氣化作用을 거처서 上行外達하면 온 몸을 護衛하는 衛氣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水는 스스로 氣化作用을 일으킬 수 없으니 少陰에 속하는 心火의 기운을 받아서 아래쪽에서 蒸騰함

29)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102. “蓋腎屬水, 爲衛氣之主, 心屬火, 爲營氣之主. 心火下交于腎, 從丹田氣海之中蒸動膀胱之水, 合化爲氣, 以充達于外, 是爲營衛. 營出于心, 屬火屬血; 衛出于腎, 屬水屬氣.”

30)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43~44. “蓋寒當傷衛, 風當傷營, 何以言寒當傷衛哉? 寒者, 太陽之本氣也. 太陽之陽, 發于至陰而充于皮毛, 是皮毛一層, 衛所居也, 衛陽虛, 招外寒, 則寒傷衛而皮毛閉塞, 故無汗. 何以言風傷營哉? 風在六氣屬厥陰風木, 厥陰主營血, 血虛則招外風, 故風傷血.”

31)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46. “桂枝一味, 能宣心陽, 從小腸連網以達於外, 使營血充於肌肉間而邪不得留也. 然則此方正是和肌肉治營血之方, 正是小腸血分之方. 若不知水火合化之理, 則此方之根源不明也.”

으로써 氣化作用이 일어나는데, 心火가 아래쪽으로 熱을 전달해주는 곳이 곧 小腸이기 때문에 小腸과 膀胱이 ‘太陽經’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2. 陽明病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六經의 氣化學說에 관련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sup>32)</sup>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이러한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sup>33)</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陽明病 관련 臟腑

사람 몸에서 天地의 燥氣를 품고 있는 것에는 胃와 大腸이 있으니, 이 두 가지는 모두 水穀을 消導하는 腑로 오직 燥氣를 품수 받았기 때문에 水穀이 들어오면 소화시켜서 胃中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胃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足陽明胃와 足太陰脾는 서로 表裏가 되면서 위치가 매우 가까워서 膜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胃 중에 있는 음식물이 津液으로 변화하여 脾로 들어가면 膜中으로 布達되면서 안에서 膏油가 만들어진다. 膏油는 脾가 담당하고 있는 물질이다. 膏油의 기능은 위쪽으로 胃氣를 救濟하면서 아래쪽으로 大腸을 滋潤한다. 膏油의 색깔은 본래 微黃色을 띠고 있으므로 병이 들면 黃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膏油가 筋骨의 바깥쪽으로 투출되면 肥肉이 되는데 이것을 이룸하여 ‘肌’라고 부른다. 邪氣가 肌肉에 있어서 膏膜을 따라 들어오면 안으로 胃와 통할 수 있다. 胃에는 大絡이 있어서 위쪽으로 心과 통하는데, 서양 의학에서 말하기를 胃 중에서 변화된 津液은 大管이 있어서 인도하여 上行하고 頸部에 이르러 管과 만나면 마침내 心의 血管과 서로 만나게 된다. …… 胃의 絡은 心과 통하고 있으므로 胃中에 燥火가 있어서 心으로 들어가서 亂神하면 곧 譫語가 된다. 燥와 熱이 서로 합하여 胃家

實이 되면 譫語하는 것이다.”<sup>34)</sup>고 하였다.

그리고 大腸이 있는데,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말하기를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sup>35)</sup>이라 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大腸이 傳道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肺의 腑가 되기 때문이니, 肺氣가 아래쪽에 도달하기에 傳道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大便을 잘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肺氣를 조절해야 한다.”<sup>36)</sup>고 하였다.

大腸의 질병은 모두 肺로부터 오므로 大腸이 燥結하면 제일 먼저 潤肺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大腸病과 肺 및 胃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大腸은 燥金을 담당하고 있어서 喜潤하면서 惡燥하기에, 寒하면 滑脫하고, 熱하면 秘結·泄痢後重·痔漏下血한다. 肺와 서로 表裏가 되므로 질병이 생기면 대부분 治肺하여 치료하고, 胃와 함께 陽明經에 속하므로 또한 대부분 治胃하는 방법을 빌려와서 치료하는 것이다.”<sup>37)</sup>고 하였다.

34)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19-220. “足陽明胃與足太陰脾相表裏, 位甚相近, 以膜相連. 胃中食物化液歸脾, 從膜中布達, 內生膏油. 膏油者, 脾之物也. 膏油功用, 上濟胃氣, 下滋大腸. 膏油之色, 本帶微黃, 故病能發黃疸. 膏油透出筋骨之外, 則爲肥肉, 是名曰肌. 邪在肌肉, 循膏膜而入, 則能內通于胃, 胃有大絡, 上通于心, 西醫言胃中化液, 有大管導之上行, 至頸會管, 遂與心之血管相會. …… 胃絡通心, 故胃中燥火, 入心亂神則爲譫語. 燥熱相合, 胃家實, 則譫語.”

3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8.

36)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 “大腸所以能傳道者, 以其爲肺之腑, 肺氣下達, 故能傳道. 是以理大便, 必須調肺氣也.”

37)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 “大腸司燥金, 喜潤而惡燥, 寒則滑脫, 熱則秘結, 泄痢後重, 痔漏下血. 與肺相表裏, 故病多治肺以治之; 與胃同是陽明之經, 故又多借治胃之法以治之.”

32)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33)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그리고 『靈樞·本輸』편에 보면 “大腸屬上, 小腸屬下, 足陽明胃脈也. 大腸小腸, 皆屬於胃, 是足陽明也.”<sup>38)</sup>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陽明病의 病理機轉은 주로 胃家實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胃家’란 胃·小腸·大腸을 광범위하게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 (2) 陽明燥金에 관한 것

사람에게 있어 燥金의 氣를 가지고 있는 것이 陽明經인데, 金氣가 수렴하여 水火가 사귀지 못하면 이것이 燥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대개 天地는 단지 水火라는 두 가지 氣가 萬物을 化生하는 것인데, 水火가 서로 사귀면 蒸하여 濕이 되는 것이고, 燥는 濕과는 반대로 水火가 서로 사귀지 못한 氣인데, 火不蒸水하면 곧 雲雨가 생기지 못하는 것이고, 水不濟火하면 露澤이 하강하지 못하는 것이다. …… 水火가 사귀지 못하는 까닭을 궁구해보면 金의 성질이 수렴하기 때문이니, 수렴하면 水火에 그쳐있으면서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므로 金神의 명칭을 ‘蓐收’라고 부르는 것이다. 秋月를 담당하고 있으니 草木이 말라 들어가고 水泉이 마르는 것이 燥金이 작용하고 있는 징험인 것이다.”<sup>39)</sup>고 하였다.

다만 燥氣에는 陰燥와 陽燥의 구분이 있으며, 陽燥는 水不濟火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陰燥는 火不蒸水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燥氣는 또한 火熱과는 다른데, 火熱은 모두 陽에 속하지만 燥氣에는 陰燥와 陽燥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개 燥와 濕은 상대

적인 것인데, 濕은 水火가 서로 사귀 氣이고, 燥는 水火가 서로 사귀지 못한 氣이다. …… 사람에게 있어 燥金의 氣를 잡고 있는 것이 陽明經인데, 金氣가 수렴하여 水火가 사귀지 못하면 이것이 燥가 되는 것이니, 곧 燥는 水火가 消耗되는 氣인 것이다. 腸胃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까닭은 모두 燥氣가 消耗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燥化가 부족하면 消化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燥化가 태과하면 津液이 손상되는 것이다. 陽燥는 水不濟火하는 것이니 이러한 증상이 최고 많고, 陰燥는 火不蒸水하는 것이니, 이러한 증상은 간혹 있으니, 이것이 ‘陽明之上, 燥氣治之.’의 의미이다.”<sup>40)</sup>고 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陽明病의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sup>41)</sup>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燥氣가 태과하면 또한 結硬 등의 증상이 되는데, 반드시 太陰의 濕에 의지함으로써 救濟하는 것이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陽明不從標本, 從中見之氣化.’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中氣인 太陰濕氣에 의지함으로써 燥를 구제한다는 뜻이고, 仲景이 ‘存津液’이라고 한 것 또한 이러한 의미이다. 手太陰肺와 手陽明大腸은 서로 表裏가 되는데, 위치는 비록 上下로 懸隔하게 떨어져있지만, 肺系의 油網은 아래쪽으로 膈膜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아래쪽으로 板油에 연결되어 있으며, 下焦에 있는 油網에 이르면서 大腸과 서로 접속하는 것이니, 肺의 津液이 腴潤하면 大腸으로 注入되면서 燥가 태과해지지 않는 것이다.”<sup>42)</sup>고 하였다.

38) 王冰 著,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506.

39)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18. “蓋天地只是水火二氣化生萬物, 水火相交, 則蒸而爲濕, 燥與濕反, 乃水火不交之氣也, 火不蒸水則雲雨不生, 水不濟火, 則露澤不降. …… 究水火之所以不交, 則由于金性之收, 收止水火, 各返其宅, 故神名蓐收, 司秋月, 草木枯槁, 水泉涸竭, 是爲燥金用事之驗也.”

40)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3~24. “燥氣又與火熱不同, 火熱皆屬陽, 而燥氣有陰燥有陽燥, 是以異焉. 蓋燥與濕對, 濕爲水火相交之氣, 燥爲水火不交之氣. …… 人秉燥金之氣爲陽明經, 夫金氣收而水火不交, 是爲燥, 則燥者水火消耗之氣也. 腸胃所以能化飲食, 皆以其燥能消耗之也. 燥化不足則不消水, 燥化太過則傷津液, 陽燥是水不濟火, 此證最多, 陰燥是火不蒸水, 此證間有, 此陽明之上燥氣治之之義也.”

4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42)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18-219. “燥氣太過, 則又爲結硬等證, 必賴

### (3) 陽明病 관련 병증

外感病邪가 胃腸으로 전해지면 대부분 燥熱로 변화하면서 ‘裏熱實證’을 나타내는데, 다만 胃陽이 虛弱하면 胃寒氣逆과 같은 ‘陽明虛寒證’도 발생할 수 있다.<sup>43)</sup>

唐宗海가 陽明病을 치료하는 세 종류의 承氣湯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세 종류의 承氣湯은 藥力에 輕重의 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主治도 또한 각각 部位의 구별이 있다. 그러므로 調胃承氣湯에서는 仲景이 ‘心煩’<sup>44)</sup> 두 글자를 제시하면서 胃의 絡脈이 心에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調胃承氣湯은 胃燥를 치료하는 것에 注意한 것이다. …… 大承氣湯은 仲景이 ‘大便已硬’<sup>45)</sup>의 네 글자를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大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大腸은 아래쪽에 있으니 藥力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고 中宮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甘草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 小承氣湯은 중점이 小腸에 있는 까닭으로 仲景은 ‘腹大滿’<sup>46)</sup>의 세 글자를 제시하는 眼目이 있었다. 대개 小腸은 大腹에 있으면서 小腸 전체가 油網으로 連接되어 있다. 油는 脾가 담당하는 것이고 膜網은 위쪽으로 肝系와 연결되어 있으니, 肝氣가 下行하면 脾土를 소통시켜서 膏油를 滑利하게 내보내는 것이다.”<sup>47)</sup> 하고였다.

세 종류의 承氣湯은 모두 약물의 작용이 胃를 거쳐서 大腸으로 내보내는 것이지만, 명명한 의미는 각각 구별되는 바가 있으니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陽明은 本燥標陽하면서 中氣로는 太陰의 濕氣가 나타나는 곳인데, 인체에서 天地의 燥氣를 품고 있는 것에는 胃와 大腸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모두 水穀을 消導하는 腑로 오직 燥氣를 흡수 받았기 때문에 水穀이 들어오면 소화시키는 것이니, 燥氣가 지나쳐서 大便秘結 등의 증상이 생기면 胃는 표리관계인 脾의 濕氣인 膏油에, 大腸은 표리관계인 肺의 津液을 통한 滋潤에 의지함으로써 燥氣를 구제하는 것이 仲景의 ‘存津液’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 3. 少陽病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六經의 氣化學說에 관하여서 설명한 것을 보면,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sup>48)</sup>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이러한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少陽太陰, 從本.”<sup>49)</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少陽病 관련 臟腑

唐宗海에 의하면 少陽病에 속하는 臟腑로는 膽과 三焦가 있다고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命門에서 坎中の 一陽이 三焦로 운행하면 단지 陽氣일 뿐이지 火라고 부르지 않는데, 오직 위쪽으로 膽에 통하면서 肝木의 生化를 얻어야지 火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空中

太陰之濕以濟之。『內經』言陽明不從標本，從中見之氣化，正是賴中見太陰濕氣，以濟其燥之義，仲景存津液亦是此義。手太陰肺與手陽明大腸相表裏，位雖上下懸隔，然肺系之油網下連膈膜，又下連板油，至下焦油網，則與大腸相接，肺津映潤，注于大腸，則燥而不太過。”

43)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39.  
44)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27. “陽明病, 不吐不下, 心煩者, 可與調胃承氣湯.”  
45)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27. “陽明病, 脈遲, 雖汗出, 不惡寒者, 其身必重, 短氣, 腹滿而喘. 有潮熱者, 此外欲解, 可攻裏也. 手足濇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  
46) 張仲景 編著.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27. “若腹大滿不通者, 可與小承氣湯.”  
47)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38~239. “三承氣湯, 不但藥力有輕重之分, 而其主治亦各有部位之別. 故謂胃承氣湯, 仲景出‘心煩’

二字, 以見胃絡通於心, 而調胃承氣, 是注意在治胃燥也. …… 大承氣湯, 仲景提出‘大便已硬’四字, 是專指大腸而言. 大腸居下, 藥力欲其直達, 不欲其留於中宮, 故不用甘草. …… 若小承氣湯, 則重在 小腸, 故仲景提出‘腹大滿’三字爲眼目. 蓋小腸正當大腹之內, 小腸通身接連油網. 油是脾所司, 膜網上連肝系, 肝氣下行, 則疏瀉脾土而膏油滑利.”  
48)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4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에 화가 있더라도 木에 붙어야 밝아지는 것이니, 대개 반드시 木에 붙은 이후에야 火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焦 중의 陽氣는 火之根이 되는데, 오직 위쪽으로 膽과 합하여야 나무에 붙은 불 같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膽은 火의 불꽃이 되고, 三焦는 火의 뿌리가 되며, 肝木은 火를 만드는 물건이 되므로 火를 논할 때에는 膽과 三焦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膽 중에 저장된 火는 出入을 모두 三焦로써 道路로 삼으며, 腎系에 托根하므로 膽과 三焦는 함께 火化를 담당하는 것이다.”<sup>50)</sup>고 하였다.

먼저 三焦에 대해서 살펴보면,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말하기를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sup>51)</sup>이라 하였다. 이것은 水液代謝 과정과 관련된 三焦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唐宗海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連網’은 곧 膈膜을 말하는 것으로, 통속적으로는 ‘網油’라고 부르는 것이고, 온 몸에 있는 膜이 모두 이것이다. 網油는 膀胱에 연결되어 붙어있기에 水는 網油를 따라 膀胱으로 滲入되는 것이니, 곧 古代에서 말한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고 한 것이다.”<sup>52)</sup>고 하였다.

三焦와 연관되어 있는 臟腑 및 인체의 器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三焦의 뿌리는 腎 중에서 나

오는데, 兩腎의 사이에 油膜 한 가닥이 脊骨을 관통하는 것을 이룸하여 ‘命門’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三焦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系統으로부터 板油가 발생하여 胸前의 膈膜으로 연결된 후 위쪽으로 胸中을 순환하여 心包絡으로 들어가고, 肺系를 따라 咽部로 올라가서 바깥쪽으로 手背胸前의 腠理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上焦가 된다. 板油로부터 鷄冠油에 연결되면서 小腸에 붙는데, 바깥쪽으로 腰腹의 腠理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中焦가 된다. 板油로부터 網油으로 연결되면서 뒤쪽으로는 大腸에 연결되고, 앞쪽으로는 膀胱에 연결되며, 가운데로는 胞室로 연결되고, 바깥쪽으로는 腎脛少腹의 腠理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下焦가 된다. 사람이 마신 물은 三焦로부터 膀胱으로 내려간 후에 決瀆이 잘 통하게 되는데, 만약 三焦가不利하면 水道가 폐색되면서 바깥쪽으로는 腫脹이 된다.”<sup>53)</sup>고 하였다.

『黃帝內經靈樞·本輸』편에서 말하기를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臟.”<sup>54)</sup>이라는 문장이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少陽屬腎이라는 것은 相火에 속하는 三焦의 뿌리가 命門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腎上連肺’는 金水가 相生함을 말하는 것으로 膀胱이 그것의 腑가 된다. 또한 ‘故將兩臟’이라고 말한 것은 腎과 命門이 또한 兩臟으로 나누어지면서 三焦·膀胱의 兩腑와 배합됨을 말한다. 『難經』에서는 ‘左爲腎, 右爲命門.’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sup>55)</sup>고 하였다.

50)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3. “命門坎中一陽, 行于三焦, 只是陽氣不名爲火, 唯上通于膽, 得肝木之生化則成火矣. 所謂空中有火, 麗木則明, 蓋必麗于木而後稱爲火, 故三焦中之陽氣, 乃火之根, 唯上合于膽, 乃爲麗木則明之火, 是膽爲火之焰, 三焦爲火之根, 而肝木則是生火之物, 故論火以膽與三焦爲主. 膽中所藏之火, 出入皆以三焦爲道路, 而托根于在腎系, 故膽與三焦同司火化.”

5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9.

52)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 “西醫所謂連網即是膈膜, 及俗所謂網油, 并周身之膜皆是也. 網油連着膀胱, 水因得從網油中滲入膀胱, 卽古所名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是矣.”

53)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 “三焦之根, 出於腎中, 兩腎之間, 有油膜一條, 貫與脊骨, 名曰命門, 是爲焦原. 從此系發生板油, 連胸前之膈, 以上循胸中, 入心包絡, 連肺系上咽, 其外出爲手背胸前之腠理, 是爲上焦; 從板油連及鷄冠油, 着於小腸, 其外出爲腰腹之腠理, 是爲中焦; 從板油連及網油, 後連大腸, 前連膀胱, 中爲胞室, 其外出爲腎脛少腹之腠理, 是爲下焦. 人飲之水, 由三焦而下膀胱, 則決瀆通快. 如三焦不利, 則水道閉, 外爲腫脹矣.”

54) 王冰 著,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510.

55)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 “少陽屬腎, 謂三焦相火, 其根在命門也. 腎上連肺, 謂金水相生, 而膀胱爲之腑也. 又曰故將兩臟, 是腎與命門, 又可分为兩臟而配

三焦는 命門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相火를 담당하고 있으며 腎에 속함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腎에는 水와 火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三焦와 합하는 것은 相火와 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三焦者, 中瀆之府, 水道出焉.”이라고 하였듯이 腎이 水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水液을 대사하는 장부는 三焦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醫學入門·臟腑』편에는 三焦와 腎의 상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腎與三焦相通, 腎病宜調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sup>56)</sup>라고 되어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三焦의 근원은 腎系에서 발생하므로 腎과 三焦는 相通하는 것이다. 三焦는 腎을 대신하여 水液을 운행하여 氣로 변화시키므로 腎病에는 마땅히 三焦를 調和시켜야 한다. 비유하자면 腎氣丸과 같은 경우에 茯苓·澤瀉를 사용하여 三焦의 水를 流利하게 함으로써 元陽을 보호하는 것이고, 黃芪를 사용하여 三焦의 氣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것이다. 三焦病으로 行水하지 못하면 마땅히 滋腎陰해야 하고, 化氣하지 못하면 마땅히 補腎陽해야 한다.”<sup>57)</sup>고 하였다.

腎系가 三焦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氣化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少陽病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장부인 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말하기를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sup>58)</sup>이라 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서양의학에서 말하기를 膽

汁은 ‘肝血이 생성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中國의 옛날 학설에서는 膽이 ‘相火’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肝木이 생성하는 氣’이다. 궁구해보면 이러한 氣가 있으면 이러한 汁이 있는 것이니, 두 가지 설명이 원래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오직 서양의학에서는 사람이 懼나 不懼는 膽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의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膽이 中正之官이 되는 까닭을 알지 못한 것이다. 대개 汁으로 논할 것 같으면 膽汁이 많은 자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氣로 논한다면 膽火가 왕성한 자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太過한 자는 中을 얻지 못하여 正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용감하여 橫暴한 사람이 되고, 不及한 자는 매번 懼怯하기에 또한 中正을 얻지 못한 것이다. 膽氣가 不剛不柔하면 中正之官이 될 수 있어서 臨事에 자연스럽게 決斷할 수 있는 것이다. 肝膽 두 가지를 함께 논한다면 肝의 陽은 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謀慮를 주관하는 것이고, 膽의 陽은 陰에서 나왔으므로 決斷을 주관하는 것이다.”<sup>59)</sup> 고 하였다.

膽氣는 肝系로부터 膈으로 들어가서 膜中으로 가며 胃로 들어가서 穀食을 소화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木能疏土’라고 부르는 것이며, 膽과 三焦가 서로 통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2) 少陽相火에 관한 것

少陽은 相火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少陽의 氣화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三焦는 腎系에 근본하기에 水中之陽을 잡고서 氣海에 도달하면 위쪽으로 肝膽에 합하는 것이 ‘水生木’이 되는 것이니, 『內經』에서

三焦膀胱之兩腑矣. 『難經』以左爲腎, 右爲命門, 自有取義.”

56)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04.

57)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5. “三焦之原, 卽發於腎系, 故腎與三焦相通. 三焦爲腎行水化氣, 故腎病宜調和三焦. 譬如腎氣丸, 用茯苓以利三焦之水保元陽, 用黃芪以充三焦之氣, 是矣. 三焦病, 不能行水, 則宜滋腎陰, 不能化氣, 則宜補腎陽.”

58)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8.

59)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 “西醫言苦膽汁, 乃肝血所生. 中國舊說, 皆爲膽司相火, 乃肝木所生之氣. 究之, 有是氣, 乃有是汁, 二說原不相悖. 惟西醫言人之懼與不懼, 不關於膽, 而又不能另指一所, 實未知膽爲中正之官故也. 蓋以汁論, 則膽汁多者, 其人不懼; 以氣論, 則膽火旺者, 其人不懼. 太過者, 不得於中, 則失其正, 是以有敢爲橫暴之人; 不及者, 每存懼怯, 亦不得於中正也. 膽氣不剛不柔, 則得成爲中正之官, 而臨事自有決斷. 以肝膽二者合論, 肝之陽藏於陰, 故主謀; 膽之陽出於陰, 故主斷.”

말한 '少陽屬腎'이라는 것이 곧 腎陽을 잡고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 膽木과 합하면 완전히 生陽하는 것이니, 膽이 胃中에 氣를 펼치면 木能疏土함으로써 水穀을 소화시키고, 위쪽으로 胸膈에 도달하여 心包에 이르게 되면 '木生火'하여 서로 表裏가 되는 것이니, 『內經』에서 말한 '少陽之上, 火氣治之.'라는 것으로 곧 膽木이 生火함을 말하는 것이다.<sup>60)</sup>고 하였다.

그리고 “少陰之上, 熱氣治之.”한다는 것과 “少陽之上, 火氣治之.”한다는 것의 차이점을 君火와 相火와의 차이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肝·膽·包絡은 모두 相火를 담당하고, 心은 君火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후세의 학설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內經』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厥陰之上, 風氣治之; 少陰之上, 熱氣治之.'라고 하였으니, 대개 少陰에 속하는 心과 腎은 함께 熱氣를 담당하고 있지 火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熱'과 '火'는 후세 사람들이 밝게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혼동하여 君火·相火라고 부른 것이다. 天의 陽氣가 반드시 木에 붙어야 火의 實體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고, 만약 水中에서 발생한 후 축적하여 강하게 내리 쬐는 태양이 된 것은 또한 단지 熱氣인 것이지 火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말하기를 '少陰之上, 熱氣治之.'라고 한 것이니, 少陰에서 생긴 坎中之 陽氣가 위쪽으로 心과 사귀면 心陽이 되는 것이다.”<sup>61)</sup>고 하였다.

### (3) 少陽病 관련 병증

少陽病의 성질은 이미 表寒證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裏熱證에도 속하지 않아서 '半表半裏의 熱證'이 된다.<sup>62)</sup>

唐宗海가 말하기를 “兩腎 중간에 있는 一條의 油膜이 命門이 되는데, 곧 이것이 三焦의 原이 된다. 위쪽으로는 肝氣·膽氣 및 胸膈에 연결되면서 위로 心으로 들어가서 包絡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小腸·大腸에 연결되면서 앞쪽으로는 膀胱에 연결되고, 下焦의 夾室은 곧 血室·氣海가 된다. 腔子を 따라 肉皮가 되고 透肉한 후 出外하여 온 몸을 싸고 있는 白膜, 이 모두가 三焦가 담당하는 곳이다. 白膜은 腠理가 되고 三焦의 氣는 腠理로 운행하므로 '寒熱之證'의 증상이 생긴다. 命門 相火는 三焦에 펼쳐지는데, 火化하여 上行하면 氣가 되고, 火衰하면 元氣가 虛해지고, 火逆하면 元氣가 損하며, 水化하여 下行하면 溺가 되고, 水溢하면 '腫'이 되고, 水結하면 '淋'이 된다. 三焦는 肝·膽의 氣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木火의 氣를 끼고 있고, 腎·心包와 相通하므로 本末이 대부분 두 곳에 있으며, 膀胱과 더불어 一陰一陽이 되면서 모두 腎의 腑에 속하니, 그 主病을 알 수 있다.”<sup>63)</sup>

따라서 소양 관련 병증을 요약해 보면, 少陽 三焦는 안쪽으로는 膈膜을 주관하고 바깥쪽으로는 腠理를 주관하는데, 內外로 出入하는 氣는 모두 腠理를 따라 왕래하므로 邪氣가 腠理에 있으면 寒熱往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太陽之氣가 바깥쪽으로 도달하지 못하여 생기는 모든 증상들은 상하로 往來하는 氣가 모두 膈膜을 따라 주행하는 까닭으로 結胸·

60)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79~280. “三焦根于腎系, 秉水中之陽, 達于氣海, 上合肝膽, 爲水生木, 『內經』所謂少陽屬腎, 卽指秉于陽之義也. 合于膽木, 全是生陽, 而膽乃布氣于胃中, 爲木能疏土, 以化水穀, 上達胸膈, 以至心包, 爲木生火, 相爲表裏, 『內經』所謂少陽之上, 火氣治之, 卽指膽木生火而言也.”

61)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3. “世言肝膽包絡皆司相火, 心爲君火, 此後世之說, 其實非也. 『內經』明言厥陰之上, 風氣治之, 少陰之上, 熱氣治之. 蓋少陰心腎同司熱氣, 不得名火. 熱與火, 後世無分曉, 故混稱君火相火. 不知天之陽氣, 必麗于木, 乃爲火之實體. 若發于水中, 積爲烈日, 亦只是熱氣, 不名爲火, 故『內經』曰: 少陰之上, 熱氣治之. 少陰坎中之陽氣, 上交于心而爲心陽.”

62)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54.

63)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8~79. “兩腎中一條油膜, 爲命門, 卽是三焦之原. 上連肝氣膽氣及胸膈, 而上入心, 爲包絡, 下連小腸大腸, 前連膀胱, 下焦夾室, 卽血室氣海也. 循腔子爲肉皮, 透肉出外, 爲包裹周身之白膜, 皆是三焦所司. 白膜爲腠理, 三焦氣行腠理, 故有'寒熱之證'. 命門相火, 布於三焦, 火化而上行爲氣, 火衰則元氣虛, 火逆則元氣損, 水化而下行爲溺, 水溢則'腫', 結則'淋'. 連肝膽之氣, 故多挾木火, 與腎心包相通, 故原委多在兩處, 與膀胱一陰一陽, 皆屬腎之腑也, 其主病知矣.”

陷胸이 되는 것이고, 邪氣가 胃로 들어가면 嘔하고 심하면 嘔吐不止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少陽이 그 轉樞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少陽에 속하는 병증은 三焦에 걸쳐서 넓게 차지하면서 많은 臟腑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傷寒論』 「少陽病」편을 볼 것 같으면 몇 가지의 條文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少陽 三焦가 膈膜 중의 도리가 되면서 臟腑와 周身内外의 關鍵이 되는 것이기에, 傷寒의 六經病 각각에는 모두 少陽證이 있지만 仲景은 少陽病의 例로 몰아넣지 않고 각각 그 무리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讀者가 少陽 三焦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六經證에 대해서 모두 회통할 수 없을 것이다.”<sup>64)</sup>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少陽은 本火標陽하면서 中氣로는 厥陰의 風木이 나타나는 곳인데, 少陽經의 氣化作用에 있어서 ‘少陽屬腎’이라는 것은 相火에 속하는 三焦의 뿌리가 命門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命門에서 坎中의 一陽이 三焦로 운행하는 것은 단지 陽氣일 뿐이지 火라고 부르진 않는데, 오직 膽을 통하면서 肝木의 生化를 얻어야지 火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4. 太陰病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六經의 氣化學說에 관련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sup>65)</sup>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이러한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少陽

太陰, 從本.”<sup>66)</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太陰病 관련 臟腑

脾와 胃는 서로 表裏가 되면서 胃는 陽明에 속하고 脾는 太陰에 속한다. 胃陽이 왕성하면 邪氣가 燥熱을 따라 변화하고, 脾陽이 부족하면 邪氣가 寒濕을 따라 변화한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內經』에서 ‘脾之與胃, 以膜相連耳.’라고 하였는데, ‘膜’은 곧 三焦와 관련된 것이고, 膜 위의 ‘膏油’가 곧 脾와 관련된 것이다. 대개 脾臟에 대해서 말한다면 형태는 連貼되어 있으며, 脾가 담당하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말한다면 안으로는 膏油가 되고 밖으로는 肌肉이 된다. 脾가 왕성하여 곡식을 받아들이면 膏油를 化生하여 內로부터 外에 이르기까지 肥肉을 만드는데, 이것이 內外로 모두 脾와 관련된 물건이 두루 충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太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커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大地의 象을 본받은 것이다.”<sup>67)</sup> 하였다.

사람 몸의 水氣는 油膜 속에서 운행하며, 사람 몸의 火와 血도 또한 脈絡이 있어 油膜을 繞行하고 있으니, 이것이 血과 氣가 膜에서 만나서 마침내 膏油를 만드는 것이고, 곧 이것이 水와 火가 사귀면 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肺도 또한 太陰經에 속하지만 『傷寒論』 「太陰病」편에서 肺와 관련된 병증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오직 足太陰은 脾土에 속하고 手太陰은 肺金에 속하는데, 『傷寒論』에서 (太陰病에) 肺金의 證治가 없는 것은 手太陰은 氣化를 하

64)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79. “少陽三焦, 膜中路道, 爲臟腑周身内外之關鍵. 傷寒六經, 皆有少陽證, 而仲景不列入少陽, 使各從其類也. 但讀者如不知少陽三焦, 則六經之證, 皆不能通矣.”

6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6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67)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91. “『內經』云: ‘脾之與胃, 以膜相連耳.’ 膜是三焦之物, 膜上之膏油即脾之物也. 蓋言脾臟, 則形名連貼, 而言脾所司之物, 則內爲膏油, 外爲肌肉. 脾旺納穀, 化生膏油, 從內達外, 生出肥肉, 是內外皆脾之物所充周也. 故曰太陰, 言其大無不至, 是象夫大地也.”

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金의 淸肅함이 없다면 土의 濕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肺는 膀胱과 皮毛에서 합하고 또한 大腸과 相습하기에, 肺病은 대부분 二經(太陽病과 陽明病)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本篇에서는 다시 덧붙이지 않은 것이니, 『傷寒論』을 읽는 자는 마땅히 會通하여야 할 것이다.”<sup>68)</sup>고 하였다.

## (2) 太陰濕土에 관한 것

脾의 氣化는 전적으로 濕氣를 위주로 하는 까닭으로 ‘太陰之上, 濕氣治之.’라고 한 것이니, 太過나 不及하지 않도록 해야 脾土는 편안해진다고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 ‘太陰之上, 濕氣治之.’라고 하였다. 濕은 脾의 本氣이다. 土에 濕氣가 있으면 비옥한 토양이 되니, 脾가 濕氣를 잡고 있는 것이 膏油를 만드는 것인데, 膏油가 滑利하면 水道가 통창되므로 脾土는 利水를 주관한다. 膏油는 膜上에서 생기는데, 膜 내부에 熱이 있어서 水가 통하지 못하면 蒸發하여 膏油의 색깔인 ‘發黃’이 되는 것이다. 膏油가 바깥쪽으로 도달하면 이것이 肌肉을 만드는 것이니, 무릇 肌肉의 邪氣는 대부분 脾分에 속하는 것이므로 桂枝湯은 補托脾氣하는 약물이 많은 것이다. 脾의 膏油는 안쪽으로 腸胃와 연결되어 있어서 腸胃 중의 음식물은 膏油의 濕에 의지하여 腐熟되는데, 만약 膏油가 腸胃를 灌溉하지 못하면 枯燥結硬하게 되고, 膏油가 乾縮되는 것을 ‘脾約’이라고 부르는데, 脾가 담당하고 있는 膏油가 수축되면 大便이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69)</sup>고 하였다.

## (3) ‘太陰病 관련 병증

陽明病은 燥熱이 진액을 손상시키는 裏熱實證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太陰病은 寒濕이 우환이 되는 裏虛寒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70)</sup>

唐宗海가 말하기를 “血은 心에 속하고 膏는 脾에 속하는데, 血管을 통하여 膏油를 만드는 것이 心火가 脾土를 생하는 뜻이다. 서양의학에서 말하기를 음식물을 먹으면 脾가 붉게 변하면서 熱氣를 발생하며 마침내 膵肉汁을 만들어서 胃中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소화시키는데, 이것이 곧 『內經』에서 말한 ‘火生土’의 뜻이다. 만약 火가 土를 생하지 못하면 胃中의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으면서 ‘不思飲食’하거나 혹은 ‘嘔’ 혹은 ‘瀉’하는 것이다. 대개 脾의 膏油가 음식물을 熏吸하지 못하여 寒濕의 氣가 도리어 腸에 주입되면 ‘腹瀉’하는 것이고, 膏油가 중초에 막히면 ‘腹脹滿’하는 것이다. 部位로써 말할 것 같으면 大腹을 말고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四肢를 주관하고, 中央에 머물고 있는 것은 四方으로 운행된다.”<sup>71)</sup>고 하였다.

『醫學入門·臟腑』편에 나오는 小腸과 脾의 상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脾與小腸相通, 脾病爲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sup>72)</sup>라고 되어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脾病은 대부분 小腸의 火가 蒸動하여 濕氣가 만들어지면서 腫脹하여 ‘泄瀉’와 ‘腹滿’과 ‘小便混濁’이 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小腸을 瀉해야 한다. 小腸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막히지 않는 까닭은 전적으로 脾濕이 적셔주는 것에 의지하는데, 서양의학에서 말한 膵肉汁이 小腸으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소화시킨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

68)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93. “唯足太陰屬脾土, 而手太陰則屬肺金, 傷寒無肺金證治者, 非手太陰不主氣化也. 無金之淸, 亦不能成土之濕. 特肺與膀胱合于皮毛, 又與大腸相合, 肺病多見于二經, 而本篇却不再贅, 讀『傷寒』者, 當會通也.”

69)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291~292. “ ‘太陰之上, 濕氣治之.’ 濕者, 脾之本氣也. 土之有濕則爲膏壤, 脾秉濕氣, 是生膏油, 膏油滑利則水道暢, 故脾土主利水. 膏油生于膜上, 膜內有熱, 水不通, 則蒸發膏油之色而爲發黃. 膏油外達, 是生肌肉, 凡肌肉之邪, 皆屬脾分, 故桂枝湯多補托脾氣之藥. 脾之膏油, 內連腸胃, 腸胃中食物賴膏油之濕腐之, 若膏油不能灌溉腸胃, 則枯燥結硬, 膏油乾縮, 名曰脾約, 言脾所司之膏油收縮, 則大便硬也.”

70)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65.

71)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92. “血屬心, 膏屬脾, 血絲管生膏油者, 心火生脾土之義也. 西醫言食入, 則脾攪動發赤, 以放出熱氣, 遂生膵肉汁, 入胃中化穀, 卽『內經』火生土之義也. 如火不生土, 則胃中食不化, 不思飲食, 或嘔或瀉. 蓋脾之膏油, 不能熏吸飲食, 而寒濕之氣返注入腸, 故腹瀉, 膏油中有滯着, 則腹脹滿. 以部位言, 則司大腹, 外主四肢, 居中央者, 運四方也.”

72)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04.

로 小腸病으로 '痢疾' 및 '秘結'과 '關門不開'와 '膈食' 등의 증상들을 모두 潤脾하는 것이 마땅하다.<sup>73)</sup>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太陰은 本濕標陰하면서 中氣로는 陽明의 燥金이 나타나는 곳인데, 사람의 脾臟은 中焦에 있으면서 膜으로 胃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脾胃의 燥濕이 서로 작용을 하여 음식물을 消化시키면 인체 내외의 臟腑와 肌肉에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太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太陰에 속하는 肺에 대해서는 『傷寒論』의 太陰病篇에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특별히 肺는 膀胱과 함께 皮毛에서 합하고 또한 大腸과 표리관계로 相合하기에 肺와 관련된 질병의 대부분이 太陽病과 陽明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 5. 少陰病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六經의 氣化學說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sup>74)</sup>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이러한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少陰太陽, 從本從標.”<sup>75)</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少陰病 관련 臟腑

少陰은 手少陰心和 足少陰腎의 두 가지 臟을 포괄하는 것으로, 心은 君主之官이 되고 腎은 先天之本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心火가 아래쪽으로 腎水에 내려오면 腎水가 위쪽으로 心을 奉양함으로써 心腎相交, 水火既濟를 통하여 상호 제약하며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sup>76)</sup>

먼저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에 대해서 말하기를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sup>77)</sup>이라 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사람 몸의 知覺運動은 어느 것 하나도 心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百體는 모두 그것의 신하가 되며 心은 君主가 되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心臟은 단지 우둔한 하나의 물건일 뿐이라서 知覺運動을 담당할 수 없으며, 知覺運動을 담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腦髓에 있다. …… 내가 말하기를 서양의학의 이러한 설명은 잘못되었다. …… 대개 서양의학은 髓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髓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물건인지는 알지 못한 것이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腎主髓’라고 하였는데, 髓는 腎精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腎과 心은 원래 상호 기능을 하는데, 髓筋이 心에 통하는 것은 腎이 心과 사귀어서 합하여 離卦가 되는 것으로, 가운데에 坎水의 象을 머금고 있으므로 이른바 神明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 대개 腎이 충족되면 髓도 충족되며, 髓筋이 心으로 들어가서 水와 火가 交濟하여 眞精이 內含하면 眞光이 外發하는 것이니 神明이 이때 나오는 것이다.”<sup>78)</sup>고 하였다.

그리고 心과 腎의 기능이 有機的으로 연결되어야 營衛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생명 현상이 유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心과 腎을 합하여 논한다면 ‘心主血脈, 腎主元氣.’한다. 血은 營이 되고 營氣는 脈中으로 운행하며, 氣는 衛가 되고 衛氣는 脈外로 운행한다. …… 營으로써 지키고 衛으로써 부리는 것이니, ‘營統于肝, 衛統于肺’하지만 그 뿌리는 곧 모

73)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5. “脾病多是小腸之火蒸動濕氣, 發腫脹作瀉滿, 小便混濁, 故當瀉小腸. 至於小腸, 所以化物不滯, 全賴脾濕有以濡之, 西醫所謂甜肉汁, 入腸化物是矣. 故小腸病及秘結, 關門不開, 膈食等症, 皆宜潤脾.”

7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7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76)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69.

7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8.

78)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0-21. “人身知覺運動, 無一不本於心, 故百體皆爲之臣, 而心爲君主也. 西醫言人心, 只是頑然一物, 不能可知覺運動, 其可知覺運動者, 全在腦髓. …… 予謂西醫此說非也. …… 蓋西醫知髓, 而不知髓是何物. 『內經』云: ‘腎主髓’, 髓者腎精所生. 腎與心, 原互爲功用, 髓筋通於心, 乃腎交於心, 合爲離卦, 中含坎水之象, 所以能司神明也. …… 蓋腎足則髓足, 髓筋入心, 以水濟火, 眞精內含, 則眞光外發, 神明於是出焉.”

두 心腎에 있는 것이다.”<sup>79)</sup>고 하였다.

『內經』에서 ‘心藏神’이라고 하였으니, 神은 비록 心이 주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腎이 주관하는 骨髓와 기능이 합해져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 서양의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知覺運動은 모두 腦髓筋이 작용하는 것이고, 心은 둔한 물건이기 때문에 知覺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서양의학은 腦髓筋이 心에 통한다고 알았지만, 心이 髓를 사용할 수 있지 髓는 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髓는 坎水の 精이 변화된 것이다. 髓가 心에 통하여 합한 것이 離火가 되는데, 가운데에 하나의 陰爻를 포함하고 있는 象이니 오직 그 陰精은 內含하고 陽精은 外越하기에 心火가 光明하면 사물을 비추어서 神이 나오는 것이다. …… 心火가 위쪽으로 그 髓를 비추면 기억하고 있는 文字가 나오는 것으로, 古人들의 ‘思’자가 ‘心’자와 ‘囟’자로 만들어 진 것이 거의 心이 髓를 사용하고 있는 의미이니 心藏神의 뜻을 알 수 있다.”<sup>80)</sup>고 하였다.

그리고 『內經』에서 ‘腎藏精’이라고 하였으니, 精은 비록 腎이 주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心血이 변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內經』에서 말하기를 ‘女子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男子二八而天癸至, 精氣溢泄.’이라고 하였다. 天癸는 天一에 속하는 坎卦 중의 陽氣가 命門을 따라 아래쪽

으로 胞宮에 이르게 되면 곧 변화하여 水가 된 것이니, ‘天癸’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督脈에서 발생한 것으로 先天의 陽氣가 胞宮에 이른 것이다. 陽氣가 이르면 陰氣도 胸前에서 상응하는 것이니, 任脈과 太衝脈은 모두 後天의 陰血을 담당하는데 心血을 인도하여 아래쪽으로 胞中으로 들어가서 天癸의 水와 서로 합한다.”<sup>81)</sup>고 하였다.

## (2) 少陰君火에 관한 것

心과 腎을 모두 少陰經이라고 부르는 것은 心主血하고 腎主水하여 모두 陰質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少陰을 ‘熱’에 속한다고 하고 少陽을 ‘火’에 속한다고 한 것은 熱은 氣에 속하고 火는 血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무릇 心과 腎은 본래 水와 火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少陰經이라고 부르는 것은 心主血하고 腎主水하여 모두 陰質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두 經絡이 모두 陰 중에 陽이 있어서 순수한 陰이 아니므로 ‘少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두 ‘熱氣’가 다스린다고 말한 것은 대개 天地 水中의 陽氣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陽精이 쌓인 것이 곧 햇볕이 되는 것이기에, 水中의 陽과 天上의 日은 역시 하나의 ‘熱氣’일 뿐이다. 예를 들어 ‘火’와 같은 경우에는 木에 붙어서 분명하게 形質이 있으니, ‘熱’이 다만 氣分에 속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이른바 ‘麗木則明之火’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天의 근원적인 것을 취하여 논한다면 少陰을 통칭하여 ‘熱’이라고 하고 ‘火’는 少陽에 속하는 것이다. 熱은 氣에 속하고 火는 血에 속하기에 熱과 火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六經에서는 熱과 火를 나누어서 두 가지 氣로 삼은 것이다. 心은 血을 주관하기에 血脈은 下行하여 大腹의 膜中에서 사귀고, 腎은 氣를 주관하기에 氣道는 上行하여 역시 大腹의 膜中에서 사귀다. 大腹은 中焦이니 脾가 담당하고 있

79)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306~307. “合心腎論之曰: 心主血脈, 腎主元氣. 血爲營, 營行脈中, 氣爲衛, 衛行脈外. …… 營以爲守, 衛以爲御, 營統于肝, 衛統于肺, 而其根則皆在心腎也.”

80)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307~308. “西洋醫言人知覺運動皆腦髓筋用事, 心是頑物, 不主知覺, 其說非也. 西醫知腦髓筋通于心而不知心能用髓, 髓不能用心, 髓是坎水之精所化. 髓通于心, 合爲離火, 中含一陰之象. 唯其陰精內含, 陽精外越, 所以心火光明, 燭照事物而神出焉. …… 心火上照其髓, 而所留記之文字乃出, 古人思字, 從心從囟, 殆即以心用髓之義, 而心之藏神意可知矣.”

81)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p.306~307. “『內經』云: ‘女子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男子二八而天癸至, 精氣溢泄.’ 天癸者, 天一坎中之陽氣, 從命門下至胞宮, 則化爲水, 名曰天癸, 是督脈所發, 乃先天陽氣至于胞宮也. 陽至則陰應之胸前, 任脈與太衝脈皆司後天之陰血, 導心血下入胞中, 與天癸之水相合.”

는 곳으로, 血液과 氣澤이 이곳에서 사귀면서 마침내 膏油를 생성시킴으로써 水穀을 소화시키는 것이니, 이것이 少陰 心腎이 中土에서 사귀는 실질적인 자취이다.”<sup>82)</sup>고 하였다.

心은 血分에 속하고 그 陽을 ‘火’라고 부르는데, 血이 膏油 중에서 운행하는 것이 火生土가 된다고 보았으며, 腎은 氣分에 속하고 그 陽을 ‘元氣’라고 부르는데, 氣가 膏膜으로 운행하면 膏油가 충족되는 것이 脾 중의 元陽이니 이것이 水火 두 가지가 中土에서 사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3) 少陰病 관련 병증

질병이 少陰 단계에 이르면 心腎의 陽氣가 모두 虛弱해지면서 虛寒의 증상이 출현하지만, 또한 邪熱이 陰液을 손상시키면서 陰虛陽亢하고 從陽化熱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도 생기는 것이니, 전자는 ‘少陰寒化證’에 속하고 후자는 ‘少陰熱化證’에 속한다.<sup>83)</sup>

心은 ‘神明’을 담당하고 있으며, ‘血脈’을 주관하고 있기에 心과 관련된 병증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血虛하면 神이 불안하여 怔忡하고, 瘀血이 있어도 역시 怔忡한다. 火가 血을 요란하면 懊懣하고, 神이 맑지 않으면 虛煩不眠하고 動悸驚惕하며, 水飲이 火를 克해도 動悸한다. 血이 心을 공격하면 昏迷하면서 痛症이 심하다. 痰이 心으로 들어가면 癲하고, 火가 心을 요란하면 狂한다.

小腸과 더불어 서로 表裏가 되므로 小腸에 熱이 있으면 小便赤澀하고, 火가 腎과 사귀지 못하면 神이 浮越하여 夢遺한다. 心의 經脈은 위로 咽喉를 끼고 舌本에 絡하므로, 實火가 위쪽으로 壅盛하면 喉痺가 되고, 虛火가 상승하면 舌強不能言한다. 胸前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火結하면 結胸·痞·火痛이 되며, 火가 宣發하지 못하면 胸痺가 된다. 心의 積聚를 伏梁이라고 하며, 心下에 팔뚝 크기의 덩어리가 있는데, 병이 발작하면 臍上에 動氣가 생긴다. 이것이 心經主病의 큰 요지이다.”<sup>84)</sup>라고 하였다.

腎은 元氣를 化生하면서 안으로는 呼吸를 주관하고 膀胱에 도달하면 바깥쪽으로 운행하여 衛氣가 되기에, 이 氣를 ‘水中之陽’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命門火라고 부르는데, 그 病症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腎水가 충족되어 火가 水中에 저장된 자는 光彩를 숨겨서 龍雷가 상승하지 않으므로 氣가 풍족하면서 鼻息이 細微해진다. 만약 水虛하면 火가 歸元하지 못하기에 喘促虛癆하고, 모든 증상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咽痛聲啞하는 것이다. 心腎不交하면 遺精失血·腫滿咳逆·痰喘盜汗한다. 만약 陽氣가 부족하면 水泛하여 痰이 되는데, 凌心冲肺하여 水腫이 발생하고, 腹痛奔豚·下利厥冷·亡陽大汗·元氣暴脫한다. 腎은 또한 先天之本이 되면서 精氣를 저장하고 있어서 女子는 天癸를 주관하고 男子는 精을 주관하는데, 水가 충족하면 精血이 많고 水가 부족하면 精血이 마른다. 五體에 있어서는 骨을 주관하기에 骨痠는 腎에 속한다. 腎病은 臍下에 動氣가 있는데, 腎이 위쪽으로 心과 사귀면 水火既濟가 되지만, 사귀지 못하면 火가 더욱 亢성해지는 것이다. 神의 위치가 腰部에 있으니 腰痛을 주관한다. 耳에 開竅하는 까닭으로 虛하면 耳鳴耳聾

82)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308. “夫心腎本分水火, 而皆稱少陰經者, 以心主血, 腎主水, 皆具陰質, 而二經皆陰中有陽, 不純于陰, 故曰少陰. 皆稱熱氣治者, 蓋天地水中之陽氣, 上騰積聚陽精則爲日, 水中之陽, 與天上之日, 亦只是一熱氣而已. 若乎火者, 麗木則明有形質, 與熱之但屬氣分者不同, 所謂麗木則明之火也. 故就先天根源論之, 則少陰統稱熱, 而火屬少陽, 乃爲麗木則明之火. 熱屬氣, 火屬血, 熱與火不同, 故六經分熱與火爲二氣焉. 心主血, 血脈下行而交于大腹膜中, 腎主氣, 氣道上行, 亦交于大腹膜中, 大腹者, 中焦也, 爲脾所司, 血液與氣澤交會于此, 遂生膏油以化水穀, 此少陰心腎交于中土之實迹也.”

83)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69.

84)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6. “血虛, 則神不安而怔忡, 有瘀血, 亦怔忡; 火搖其血, 則懊懣; 神不精明, 則虛煩不眠, 動悸驚惕; 水飲克火, 心亦動悸; 血攻心, 則昏迷, 痛欲死; 痰入心, 則癲; 火亂心, 則狂. 與小腸相爲表裏, 遺熱於小腸, 則小便赤澀; 火不下交於腎, 則神浮夢遺. 心之脈, 上挾咽喉, 絡於舌本. 實火上壅, 爲喉痺; 虛火上升, 則舌強不能言. 分部於胸前, 火結則爲結胸, 爲痞, 爲火痛. 火不宣發則爲胸痺. 心之積, 曰伏梁, 在心下, 大如臂, 病則臍上有動氣. 此心經主病之大旨也.”

한다. 瞳人是腎에 속하니 虛하면 腎水가 흠어지면 서 축소하거나, 혹은 內障이 발생한다. 虛陽이 위쪽으로 넘치면 咽痛頰赤하고, 陰虛하면서 化水하지 못하면 小便不利하며, 陽虛하면서 化水하지 못하면 역시 小便不利해진다.”<sup>85)</sup>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少陰은 本熱標陰이면서 中氣로는 太陽寒水가 나타나는 곳인데, 心과 腎을 합하여 논한다면 ‘心主血脈, 腎主元氣’한다고 볼 수 있으며, 血은 營이 되고 營氣는 脈中으로 운행하고, 氣는 衛가 되고 衛氣는 脈外로 운행하는데, ‘營統於肝, 衛統於肺’하지만 그 뿌리는 곧 모두 心腎에 있다고 보았다.

## 6. 厥陰病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六經의 氣化學說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sup>86)</sup>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이러한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sup>87)</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厥陰病 관련 臟腑

厥陰病과 관련된 장부로는 肝과 心包가 있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厥陰이 關이 되는 足厥陰肝經은 주로 下焦의 陰氣를 저장하여 血脈으로 하여금 潛藏하게 하여 精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고, 手厥陰心包絡은 주로 上焦의 陰氣를 저장하여 陰血로 하여금 收斂하여 火가 發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厥陰을 關이라고 하는 것이다.”<sup>88)</sup>고 하였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말하기를 “臆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sup>89)</sup>이라 하였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臆은 곧 胸前에 있는 膈膜으로 脇脊을 두루 돌아서 붙어있으면서 濁氣를 차단하고 있으니, 膈膜을 臆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臆의 中에 있는 것이 곧 心包絡이다. …… 오직 心包絡만 相火가 펼쳐지면서 膈膜의 중앙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臆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相火에 속하면서 또한 血을 주관하는 것이다. 血으로써 火를 구제하면 조화로워지면서 맹렬하지 않으므로 ‘喜樂’을 주관하는 것이다. 心이 우울한 자는 包絡의 火가 펼쳐지지 못해서이고, 心이 지나치게 기쁜 자는 包絡의 火가 지나치게 왕성하기 때문이다.”<sup>90)</sup>

### (2) 厥陰風木에 관한 것

『內經』에서 ‘厥陰之上, 風氣治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風은 陰陽이 서로 부딪히는 氣를 말하는 것이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이러한 風氣를 잡고 있어서 이것이 厥陰風木의 臟을 만드는 것이고, 肝臟이 아래쪽으로 腎系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水生木’이 되고, 肝臟이 위쪽으로 包絡과 연결되어 합하여 하나의 經絡이 되는 것이 ‘水生火’가 된다.

85)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血證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 “腎水充足, 則火之藏於水中者, 韜光匿彩, 龍雷不升, 是以氣足而鼻息細微. 若水虛, 則火不歸元, 喘促虛癆, 諸證并作, 咽痛聲啞, 心腎不交, 遺精失血, 腫滿咳逆, 痰喘盜汗. 如陽氣不足者, 則水泛爲痰, 凌心沖肺, 發爲水腫, 腹痛奔豚, 下利厥冷, 亡陽大汗, 元氣暴脫. 腎又爲先天, 主藏精氣, 女子主天癸, 男子主精. 水足則精血多, 水虛則精血竭. 於體主骨, 骨痿故屬於腎. 腎病者, 臍下有動氣, 腎上交於心, 則水火既濟, 不交則火愈亢. 位在腰, 主腰痛. 開竅於耳, 故虛則耳鳴耳聾. 瞳人屬腎, 虛則腎水散縮, 或發內障. 虛陽上泛, 爲咽痛頰赤, 陰虛不能化水, 則小便不利, 陽虛不能化水, 小便亦不利也.”

8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87)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88)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9. “厥陰爲關者, 足厥陰肝經主藏下焦之陰氣, 使血脈潛而精不泄, 手厥陰心包絡, 主藏上焦之陰氣, 使陰血斂而火不作, 故曰厥陰爲關也.”

8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8.

90)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 “臆即胸前膈膜, 周回連着脇脊, 以遮濁氣, 膈膜名臆, 而居臆之中者, 則是心包絡. …… 惟心包絡, 則相火布令, 居于膈膜之中, 故名臆中, 屬相火, 又主血, 以血濟火, 則和而不烈, 故主喜樂. 心憂者, 包絡之火不宜也; 心過喜者, 包絡之火太盛也.”

세 가지가 합하여 변화하면 氤氳이 暢達하면서 血氣가 周流하게 되는데, 이것이 厥陰風氣의 조화로움이 된다. 風이 질병이 되는 것은 또한 水冷과 火熱이 그 조화와 균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sup>91)</sup>고 하였다.

厥陰은 陰之盡이 되고 陰盡하면 陽生하여 和風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卦에 있어서는 震卦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肝이 되는데, 肝體로 論할 것 같으면 心脾의 陰血을 얻어서 凝結하여 形질을 만든 것을 陰體라고 하는 것이니, 마치 震卦의 위쪽에 두 개의 陰爻가 있는 것과 같다. 肝 중의 계열은 脊椎에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腎系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腎水 중의 一陽을 얻어서 발생하는 것이니, 마치 震卦의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陽爻와 같다. ‘厥陰’이라고 부른 것은 그 體가 陰이기 때문이고, 또한 ‘風氣治之’라고 말한 것은 그 用이 陽이기 때문이다. 陰盡하면 陽生하는 것이 和風이 되는데, 風氣가 조화로우면 百體가 通暢하는 것이다.”<sup>92)</sup>고 하였다.

### (3) 厥陰病 관련 병증

厥陰病은 寒熱錯雜證에 속하는데, 厥陰은 陰盡陽生處에 해당되므로 病情의 변화가 대부분 극단적으로 나타나기에 證候의 특징은 寒熱이 混同하여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 病理機轉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上熱下寒’이고, 다른 하나는 ‘陰陽勝復’하여 寒熱이 交替하면서 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厥陰病은 또한 단순한 寒證과 熱

證도 있는데, 寒證은 血虛寒凝하여 厥症에 이른 것이고, 熱證은 肝熱下迫하여 下利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sup>93)</sup>

唐宗海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는 厥陰肝經에 속하는데, ‘厥’이라는 것은 盡하였다는 뜻이고, 逆하였다는 뜻이다. 陰이 盡하면 陽이 生하기에 極하면 다시 返하므로 ‘厥陰’이라고 말한 것이니, 厥陰肝臟은 안에 膽火를 포함하고 있고, 厥陰 包絡은 아래로 三焦와 통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陰은 體가 되고 陽은 用이 되는데, 『內經』에서 말하기를 ‘厥陰, 不從標本, 從中見之氣化’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이 通陽和陰함을 말하는 것으로, 氤氳이 摩蕩하여 和風이 만들어지면 氣血에는 질병이 없는 것이다. 만약 肝木이 腎水를 끼고 있으면 寒風이 발생하는 데, 마치 風이 冷帶지역으로부터 불어오는 것과 같으니 마침내 ‘厥’과 ‘利’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包絡이 心火를 끼고 있으면 熱風이 발생하는 데, 마치 風이 熱帶지역으로부터 불어오는 것과 같으니 마침내 ‘膿血’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혹은 寒熱이 서로 진퇴하면서 ‘厥熱往來’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혹은 外寒內熱하기에 ‘厥深者熱亦深’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혹은 下寒上熱하기에 ‘飢’와 ‘渴’ 및 ‘不能食’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혹은 陰搏陽回하기에 左旋右轉의 ‘抽風’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혹은 陽回陰復하기에 厥과 熱이 고르게 되면서 自愈하게 되는 것이다. 風이 蟲을 생성시키는 것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먼저 濕이 쌓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蟲從風化’ 또는 ‘蟲從濕化’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개 먼저 陰濕이 浸漬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陽風이 熏動하게 되면 蟲이 꿈틀거리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厥陰經의 證治를 알지 못하는 것은 ‘風氣’ 두 글자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sup>94)</sup>고 하였다.

91)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347. “人身秉此風氣, 是生厥陰風木之臟; 肝膈下連于腎系, 爲水生木; 肝膈上連包絡, 合爲一經, 爲木生火. 三者合化, 氤氳暢達而血氣得以周流, 爲此厥陰風氣之和也. 風之爲病, 又由于水冷火熱不得其平之故.”

92)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25. “于卦爲震, 于人爲肝, 以肝體論, 得心脾之陰血, 凝結成質, 是爲陰體, 如震卦之上二陰爻也. 肝中之系連于脊, 下連腎系, 得腎水中之一陽所發生, 如震卦之下一陽爻也. 名厥陰者, 以其體陰, 又曰風氣治之, 以其用陽, 陰盡陽生, 是爲和風, 風氣和而百體暢.”

93)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p.81.

94)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348. “在人屬厥陰肝經. 厥者, 盡也, 逆也. 陰盡而陽生, 極而復返, 故曰厥陰. 謂厥陰肝臟內含膽火, 厥陰包絡下通三焦, 陰爲體而陽爲用, 『內經』所謂 ‘厥陰不從標本, 從中見之氣化’者, 正謂其通陽和陰, 以成其氤氳摩蕩之和風, 則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厥陰은 本風標陰이면서 中氣로는 少陽의 相火가 나타나는 곳인데, 足厥陰 肝臟은 안으로 膽火를 포함하고 있고, 手厥陰의 心 包絡은 아래쪽으로 三焦와 통하고 있어서 體는 陰이지만 用은 陽이 되므로 『素問』에서 厥陰을 “不從標本, 從乎中”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 Ⅲ. 考察

六經의 氣化理論은 후세에 『傷寒論』을 연구하던 학과 중 하나로써, 『黃帝內經』의 天人合一 사상에 근거하고 『素問』의 運氣 7편에 나오는 六氣의 氣化學說을 援用하여 『傷寒論』에서 辨病하고 辨證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결합함으로써 조금씩 완성된 학설이다.<sup>95)</sup>

六經의 氣化學說과 관련된 내용을 臨床과 연결시켜 최초로 설명하기 시작한 의학자는 金代의 劉河間인데, 그가 말하기를 “대개 병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標本에 밝아야 하는데, …… 六氣는 本이 되고 三陰三陽은 標가 된다. 그러므로 病氣는 本이 되고, 病邪를 받아들이는 經絡이나 臟腑를 標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sup>96)</sup>

그 후 清代에 이르면서 六經의 氣化學說을 『傷寒論』의 병증과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의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盧子頤, 張志聰, 陳修園, 黃元御 등과 같은 의학자들이 있다.

盧子頤(1599~1664년)는 名末清初의 의학자로 字가 子繇며 錢塘(지금의 浙江省 杭州) 사람이었다. 그가 지은 『仲景傷寒論疏鈔金鑰』는 運氣7篇 大論에

나오는 六氣의 氣화로 『傷寒論』을 註釋하기 시작한 최초의 작품으로 張志聰의 제자인 莫二銘이 말하기를 “『傷寒論』이라는 하나의 책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1,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뜻을 아는 자가 드물었다. 三陰三陽이 相傳하는 것에 갖추어진 것을 ‘六經’이라고 말한 것이고, 나의 스승은 盧氏의 氣化에 대한 해석을 근본으로 하여 ‘六氣’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sup>97)</sup>

그 후 張志聰(1610~1684년)은 清代의 유명한 의학자로 字는 隱庵이고 역시 錢塘 사람이었다. 그는 三陰三陽의 질병이 대부분 六經의 氣화로 되는 것이지, 결코 經絡 자체의 병변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으며, 『傷寒論』을 『素問』 運氣學說의 標本中氣學說로 傷寒 六經을 註釋하여 氣化의 각도에서 六經의 실질을 탐구하였는데,<sup>98)</sup> 그가 말하기를 “張仲景 先祖께서 方劑를 채용하여 질병을 치료했던 것은 또한 『神農本草經』의 뜻에 근본 하였다. 무릇 사람은 天地에 서로 참여하면서 日月과 서로 상응하므로 『陰陽大論』을 지어서 말하기를 ‘사람의 陽氣는 天氣와 상응하여 외부에 있고, 五臟의 五行은 五運이 중에 있으면서 升降出入하고 環轉無端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風寒에 손상되면 비로소 外內淺深의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陰陽大論』의 五運六氣 중에서 찾으면 『傷寒』의 大義에 대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99)</sup>고 하였다.

張志聰의 학설을 계승한 사람으로는 乾隆시기에 陳修園(1753~1823년)이 있었는데, 그는 六經의 氣化學說이 張仲景의 三陰三陽의 辨證論治 체계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된다고 보면서 말하기를

氣血無病也。若肝木挾腎水，發而爲寒風，如風從冷帶吹來者也，遂發厥利。若包絡挾心火，發而爲熱風，如風從熱帶吹來者也，遂發膿血；或寒熱互相進退，爲厥熱往來；或外寒內熱，爲厥深者熱亦深，或下寒上熱爲飢渴，又不能食；或陰搏陽回，爲左旋右轉之抽風；或陽回陰復，爲厥熱停勻而自愈。至于風之生蟲，必先積濕，故蟲從風化，又云蟲從濕化，蓋先有陰濕浸漬，後被陽風熏動，則蠕蠕而生矣。人多不知此經證治，皆以風氣二字，先不明也。”

95) 郝日晉. 傷寒論六經氣化理論淵源與發展的文獻研究. 湖北中醫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14.

96)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 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795.

97) 郝日晉. 傷寒論六經氣化理論淵源與發展的文獻研究. 湖北中醫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p.32~33. “傷寒一書，迄今千百餘年，鮮有知其意者。三陰三陽相傳俱謂六經，吾師本盧氏氣化之解而曰六氣。”

98) 鄭城采. 傷寒 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p.145.

99)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0. p.748. “仲祖采方治病，亦本神農經義。夫人與天地相參，與日月相應，故撰用『陰陽大論』謂人之陽氣應天氣在外，五臟五行應五運之在中，升降出入，環轉無端。若爲風寒所傷，始見外內淺深之病。故學者當於大論中之五運六氣求之，『傷寒』大義，思過半矣。”

“六經의 標本中氣에 밝지 못하면 『傷寒論』을 읽을 수 없다.”<sup>100)</sup>고까지 말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오직 張隱庵과 張令韶의 두 醫家가 原文에 注解를 한 것이 있는데, 비록 간간이 矯枉過正한 곳이 있지만 五運六氣와 陰陽이 交會하는 이치를 밝히고 있어서 晁景이 自序에서 ‘저술할 때 『素問』 『九卷』 『陰陽大論』을 사용하였다’는 뜻과 부합하기에 나는 최고로 탄복하였다.”<sup>101)</sup>고 하였다.

동시에 清代의 名醫였던 黃元御(1705~1758년)도 『傷寒懸解』에서 “六氣가 和平하면 一氣가 獨勝하지 않는 것인데, 諸氣가 패배하여 一氣가 獨勝함으로써 一腑一臟의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다.”<sup>102)</sup>고 하면서, 인체 내의 어느 六氣가 지나치게 勝하여 병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氣가 유독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후로도 많은 유명한 의가들, 예를 들어 王朴莊, 陸九芝, 唐宗海 등도 모두 서로 이어가면서 ‘六經氣化說’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학설로 하여금 진실보 발전하게 만들었는데,<sup>103)</sup> 본 논문에서는 주로 唐宗海가 쓴 『傷寒論淺注補正』을 통하여 六經의 氣化學說을 설명한 것이다.

唐宗海가 말하기를 “陳修園의 책은 張隱庵과 張令韶를 따르면서 겸하여 各家의 학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하지만, 오히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唐宋 이후에 직접적으로 臟腑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內經』에서 논한 陰陽氣化에 대하여 대부분 실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명의 張氏는 힘써 노력하면서 정밀하고 깊게 연구하여 ‘理致’에 있어서는 자못 상세하였지만 ‘形體’에 있어서는 다 갖추지 못하여 形體에 氣가 붙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形體를 떠나서 氣를 논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최근에 나온 서양의 의학은 形迹을 논한 것은 지극히 상세하였지만 氣化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것이 그 단점이다. 그러나 西醫의 形迹에 따라 『內經』의 氣化를 찾았다면 印證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sup>104)</sup>고 하였으니, 그는 서양의학의 解剖學이나 生理學 지식 등 실증적인 것들과 연관 지어서 한의학의 氣化學說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六氣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臟腑·經絡과 결합시켜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그의 관점은 대단히 실증적인 관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V. 結論

唐宗海는 서양의학의 ‘解剖學’과 한의학의 ‘氣化學說’을 상호 결합하여 서양의학의 장점을 취하면서 한의학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黃帝內經』에 나오는 臟象論이나 三陰三陽 및 關闔樞 등과 같은 이론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傷寒論』의 六經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주장한 氣化學說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太陽經의 氣化作用에 있어서 사람들은 반드시 小腸과 膀胱이 交通하는 까닭을 알아야 하고, 또한 반드시 心과 腎의 水火가 相蒸하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더욱이 兩腑와 兩臟의 연락이 모두 三焦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陽明經의 氣化作用에서 보면 인체에서 天地의 燥氣를 품고 있는 것에는 胃와 大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水穀을 消導하는 腑로 오직 燥氣

100)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p.375. “六經之本標中氣不明, 不可以讀『傷寒論』.”

101)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p.373. “惟張隱庵張令韶二家, 俱從原文注解, 雖間有矯枉過之處, 而闡發五運六氣, 陰陽交會之理, 恰於仲景自序撰用素問九卷陰陽大論之旨吻合, 余最佩服.”

10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2. “六氣和平, 則一氣不至獨勝, 諸氣敗北, 一氣獨勝, 故見一腑一臟之病.”

103)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 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797.

104)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p.17. “修園書, 道從二張, 兼采各家, 至爲精當, 而猶有缺誤者, 只因唐宋後, 無人親見臟腑, 于內經所論之陰陽氣化, 多不着實, 二張力求精深, 于理頗詳, 而于形未悉, 不知形以附氣, 離形論氣, 絕非確解. 近出西洋醫法, 所論形迹至詳, 唯西醫略于氣化, 是其所短, 然即西醫之形迹, 循求『內經』之氣化, 則印證愈明.”

를 품수 받았기 때문에 水穀이 들어오면 소화시키는 것인데, 燥氣가 지나쳐서 大便秘結 등의 증상이 생기면 中氣인 太陰濕氣에 의지함으로써 燥氣를 구제하는 것이 仲景의 ‘存津液’의 의미라고 보았다.

셋째, 少陽經의 氣化作用에 있어서 ‘少陽屬腎’이라는 것은 相火에 속하는 三焦의 뿌리가 命門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命門에서 坎中の 一陽이 三焦로 운행하는 것은 단지 陽氣일 뿐이지 火라고 부르지 않는데, 오직 膽을 통하여서 肝木의 生化를 얻어야지 火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太陰經의 氣化作用에 있어서 脾가 왕성하여 곡식을 받아들이면 膏油를 만들어서 內로부터 外에 이르기까지 肥肉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 몸의 水氣나 火血도 또한 油膜을 繞行하고 있어서, 이것이 膜에서 만나서 마침내 膏油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少陰經의 氣化作用에 있어서 心과 腎을 합하여 논한다면 ‘心主血脈, 腎主元氣’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血은 營이 되고 營氣는 脈中으로 운행하며, 氣는 衛가 되고 衛氣는 脈外로 운행하는데, ‘營統於肝, 衛統於肺’하지만 그 뿌리는 곧 모두 心腎에 있다고 보았다.

여섯째, 厥陰經의 氣化作用에 있어서 肝膈이 아래쪽으로 腎系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水生木’이 되고, 肝膈이 위쪽으로 包絡과 연결되어 합하여 하나의 經絡이 되는 것이 ‘木生火’가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합하면 氤氳이 暢達하면서 血氣가 周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그가 서양의 해부학이나 생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연결시켜 나름대로 『傷寒論淺注補正』을 氣化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는 있지만, 일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牽強附會한 내용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의학의 핵심이론인 ‘氣化學說’과 ‘六經

理論’을 바탕으로 『傷寒論』을 일관되게 해석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며,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하여 『黃帝內經』과 『傷寒論』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References

1. 김기욱, 박현국. 唐宗海의 醫易思想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제12권 2호. 1999.
2. 南京中醫藥大學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16.
3. 唐宗海 著. 傷寒論淺注補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0.
4.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 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5.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王冰 著, 陳柱杓 編註. 黃帝內經讀誦本. 서울, 法仁文化社. 2009.
7. 王冰 著.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8. 李素云, 趙京生. 唐宗海之經脈氣化觀淺析. 中國鍼灸. 第29卷 第5期. 2009.
9. 이필우, 김용진, 윤창렬. 唐宗海의 醫學思想.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韓醫學編 第3권 第2호. 1995.
10. 李梴.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1. 張仲景 著.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2.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0.
13. 鄭城采. 傷寒 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14.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15. 肖衍初. 『傷寒論淺注補正』試析. 廣西中醫學院. 第2卷 第353頁. 1984.
16. 郝日晋. 『傷寒論』六經氣化理論淵源與發展的 文獻研究. 湖北中醫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17. 허종찬, 원진희, 문구. 唐宗海의 脾胃에 대한 醫學觀 研究. 한국전통의학지. 제15권 1호. 2006.
18. 허종찬, 조원준. 唐宗海의 中西匯通에 의한 脾胃觀.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제13권 1호. 2007.
1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2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